

최근의 정유업계 경영실태와 전망



김희선
〈LG-Caltex정유 업무1팀 과장〉

1. 머리말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연간 원유수입액 140억불, 석유의존도 62% 등의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특히 석유가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또한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 영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정유업의 안정적 성장은 정유업 경쟁

력 강화차원을 넘어서 국내 전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막중한 의미가 있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성장성

보다는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석유산업을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원유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비축수준과 에너지효율은 낮고, 소비성향이 높은 아주 취약한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1970년에 석유사업법을 제정하여 석유산업을 관리해 왔으며, 1970년대 두번의 석유위기와 1989년의 걸프사태에 나름대로 정부주도하에 위기를 넘기고 이제는 석유소비 세계 제 6위의 나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WTO등과 같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용인하지 않고 석유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내년을 시작으로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표-1〉 참조)

이에 업계에서는 20년이 넘게 정부의 규제하에 있던 석유산업의 경쟁력에 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비껴나 있을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

〈표-1〉 석유산업자유화 계획

일 정	내 용
1997. 1. 1	• 석유제품가격 자유화(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	• 석유수출입 자유화(승인제 → 등록제)
"	• 석유판매업 자유화(허가제 → 등록제)
1999. 1. 1	• 석유정제업 자유화(허가제 → 등록제)
"	• 대외개방(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운영업)

도 터져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괄적으로나마 정유업이 처한 현실 및 향후 전망을 정유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정유업계 경영실태

정유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석유제품원가(공장도가격기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다.(<그림-1> 참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OB, 운임, 보험료, 수입부대비 등 원유관련비용의 비중이 77%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석유부과금 및 관세 등 정부부과금이 10% 수준이고 제조경비, 내륙수송비, 판매일반관리비 및 금융비 등 기타 제반정제비용이 13% 수준이다. 그런데 위의 원가요소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원유관련비용, 정부부과금 등은 정유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정유사 관리하에 있는 정

제비도 구성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감가상각비, 금융비, 수송저유비 등 정유사가 단기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비용(*uncontrollable cost*)이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석유제품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원가의 대부분이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통제불능 비용인 것이다. 따라서 정유사의 손익은 그만큼 외생변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율이 정유사 손익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원유도입시 결제자금이 외화로 되며,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모되기 때문에 국내자금만으로는 충당하기가 충분치 않아 해외차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유전스(연지급방식)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변동

은 자금사정 뿐만 아니라 환차손 발생 등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현행 유가연동공식은 상기 원가요인을 반영하여 작성되어 왔으며 원가비중이 높은 국제원유가 및 환율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조하에서 최근 5년간 정유부문 손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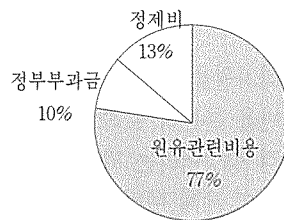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유사는 최근 5년간 허용이익 대비 1,000억원이상의 손실을 실현하였고, 연동제가 실시된 '94년 이후에는 무려 2,000억원 이상으로 손실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올해는 3,0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유부문 적자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살펴본 제반원가 변동이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현행 유가연동공식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연동공식에서 1년 단위로 상수로 반영되고 있는 운임, 보험료율, 정제비 등 항목이 지체반영 내지 과소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비용의 적기 반영 실패가 정유사의 적자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이중 운임의 예를 들어보면 유가연동제에 반영된 운임은 현실운임에 비해 배럴당 30센트 이상 낮았는데 이는 연간으로 1,000억원 이상의 규모가 되며, 시설확대에 따른 감가상각

<그림-1> 공장도가격 기준 원가 구성비
('96. 10. 1가격 기준)



<표-2> 최근 5개년간 정유부문 손익

(단위 : 억원)

	1991	1992	1993	1994	1995
실적	△ 166	△ 17	748	△ 237	△ 845
적정이익*	1,275	1,589	1,731	1,939	2,199
차이	△ 1,441	△ 1,606	△ 983	△ 2,176	△ 3,044

* 적정이익 =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세후 10% 수준
(이는 정유사 총원가의 15% 수준에 불과)

〈표-3〉 유통자금 현황

	1993말	1994말	1995말
규모(억원)	34,952	45,483	56,635
전년대비 증가액(억원)	+3,790	+10,702	+11,150
증가율(%)	12.2%	30.8%	24.5%

비, 지급이자 등 정제비의 증가분도 아직 적정수준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석유가격결정이 수치를 근거로 한 합리적인 결정 외에 물가문제 등 경제외적인 여건까지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겠지만, 최근의 국내 정유업의 손익현황을 보면 적정 원가를 적기에 가격에 반영하는 처방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정유사 경영실태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간 또 다른 원인은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로 비롯된 정유사간 과당경쟁이다. 그 결과 유통단계에 깔려있는 자금이 1995년 말 현재 5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표-3〉 참조)

자금을 지원한 정유사로서 변명이 있을 수 없지만, 불안정한 유통구조로 인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당경쟁을 해야만 하는 정유사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하다.

정유사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환경규제 강화, 수요의 경질화, 저유황화에 대비하여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등 대규모 고도화시설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중 특히 환경강화 측면에서 경제성이

없는 탈황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등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내수급안정 및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저장시설 등 물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나 환경오염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집단적 민원발생 등으로 부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비축의무가 '97. 1 시행되는 개정 석유사업법상 현행 30일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추가적인 경영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향후 경영전망 및 선결과제

정유업의 향후 경영전망은 기본적으로 원유가 및 환율 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또한 이러한 외생변수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응하느냐의 여부, 다시 말하면 원

가인상분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데 원유가, 운임 및 환율이 '97년말까지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인상 전망이 지배적이며, 이는 향후 정유업의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운임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양오염방지책 등으로 유조선 선령관리강화 및 항로 규제 등으로 운임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원유가 및 환율에 따른 국내유가 영향은 다음과 같다.(〈표-4〉 참조)

또한 현재 생존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통부문에서의 정상화(과다한 유통비용 부담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환원)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는 석유산업자유화를 앞두고 정유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망 정비, 고도화시설투자, 저장시설 확충 등이 불가피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차원에서 유통부문의 과도한 자금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격자

〈표-4〉 원유가 및 환율에 따른 유가영향

	공장도가	소비자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원유가 1\$/B 인상시	4.05%	2.52%	0.1872P%	0.0381P%
환율이 10₩/\$ 인상시	1.17%	0.73%	0.0548P%	0.0108P%

유화는 정유업계의 경영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적정원가를 반영한 수준의 가격, 건전한 경쟁 질서유지 등 자유화의 기본바탕이 위협받는 사태가 야기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정유업계의 체질을 매우 약하게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죽도록 싸웠으나, 결과적으로 승자가 없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경쟁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후 유증 또한 큰 것임을 작금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년부터 가격이 자유화될 경우 경질유 특히 휘발유 등의 가격이 국내 과당경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최근 공장도가격기준으로 휘발유가격이 등유의 81%, 경유의 87%에 불과하며, 여기에 유통비용, 광고비 등 제비용을 감안한다면 휘발유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국내 석유산업자유화시 각 부문에 걸쳐 기존/신규참입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9년 이후 대외개방으로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참여로 이에 대비한 국내석유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외개방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메이저가 국내시장을 어느정도 잠식하느냐로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국내 석유수급안정은 어떤 방식

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리적·경제적으로 우리와 여건이 다른 나라의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지 등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 석유산업의 전망이 그만큼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단지 이웃 일본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시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4. 맺는말

현재의 정유업계는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몸을 꺼안고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달리기 선수와 같은 처지다. 머리말에서 서술했듯이, 석유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1개 기업의 도산이 아니다. 그건 바로 경제의 몰락이며 자원이데올로기 하에서의 메이저 종속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학자, 업계관계자들은 대외 개방을 앞두고 고도화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목청을 높인다. 유통계열화를 통한 유통합리화도 내세운다. 하지만 이윤이 나지 않는데 어찌 투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 마치 허기진 선수에게 『뛰어! 힘차게 뛰어!』라고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선 기본체력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시장의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이전에 적정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언론, 일반소비자들의 시각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정유업은 땅집고 헤엄치는 장사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라는 말은 이미 일반론처럼 회자되고 있고 기름 역시 지천에 널린 주유소에서 파는 공산품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석유위기 등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옛이야기 정도로 여기는 듯 하다. 정부의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내년도 예특 예산 편성시 비축시설건설/유가완충금/다변화지원금 등이 금년 예산규모보다도 축소 조정되고 있다가 이라크 사태가 발발하자 겨우 일정액 인상되는 일도 있었다. 석유산업에 대한 왜곡된 질책과 무관심은 이제 거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자유화를 불과 육십여일 앞둔 시점에서 불현듯 두려운 생각이 든다.

우리는 너무 시대조류, 대의명분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향후 정유업이 무조건 힘센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 체제하의 폐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던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최근 필자가 일본총장시 석유담당 정부관리의 의견을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다.

질문 : 일본의 정제업 대외개방은 언제쯤인가?

답변 : 5년 이후에나 검토할 사항이다. 그런데 누가 이익도 없는 일본의 정유업에 참여하겠는가? 아무도 없을 걸요 ☹